

방송에 나타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 상호작용 전략의 사용 양상

황선영

승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조교수, 한국어교육학 전공

hwangsy@ssu.ac.kr

- I. 머리말
 - II.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 상호작용 전략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
입(AKSR2019-C14).

I. 머리말

본 연구는 다중언어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 상호작용 상황에서 화자들이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다중언어사회는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를 뜻한다.¹ 이때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언어는 숙달도가 중요하지 않으며, 한 개의 언어만을 사용하거나 두세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다중언어사회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이미 다중언어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라는 공간의 다중언어사회에서 다양한 국적의 화자들은 한국어를 접촉 언어(contact language)로 사용하게 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1)은 이탈리아인 사위와 한국인 장모의 대화 중 일부이다.

(1) 사위: [할일 찾으며] 김밥 cut?[씨는 시늬]

장모: 아니 안 썰어 놔도 돼.

사위: 어머니 How about 떨치?

〈KBS 이웃집 찰스 183회〉

(1)의 이탈리아인 사위는 한국에서 살지만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화자이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국인 장모를 도우러 갔는데, 자신이 할 일이 없자 김밥을 미리 썰어놓을지 묻는다. 이때 '썰다'라는 표현을 몰라 모국어 가 아닌 영어로 표현하면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시에 몸짓으로

1 심상민·조형일, 「다중언어 사회에서 읽기 교육의 방향」, 『새국어교육』 제120호 (2019), 190쪽.

‘썰다’를 표현한다. 그러자 장모는 이를 이해하고 ‘안 썰어도 된다’고 답한다. (1)의 사위는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위와 같이 언어 간 경계를 오가는 전략적인 의사소통의 수행에 대해 Canagarajah(2013)는 ‘횡단적 언어 수행(translingual practice)’으로 개념화하였다.² 횡단적 언어 수행은 특정한 언어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의사소통의 자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화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횡단적 언어 수행의 입장에서는 화자가 특정한 언어의 규범을 따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사용의 다양한 레퍼토리는 의사소통을 위한 자원이 되며, 언어 사용자의 주체성과 언어적 차이를 존중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위 (1)의 화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면서 의사소통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한국에서 한국어 비모어 화자들은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접촉 언어인 한국어와 영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 나간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비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 자신이 가진 언어적 자원을 활용해 추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하면서 의사소통을 이어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언어 수행의 관점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접촉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교정의 대상이나 결핍으로 보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자원의 활용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2 신동일 외, 『접촉의 언어학: 다중언어사회의 교육과 정책』(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35쪽.

3 신동일 외(2017), 위의 책, 38쪽.

점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언어 습득에서 외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Tarone(1981)은 의사소통 전략을 '회피, 풀어말하기, 의식적 전이, 도움 요청, 비언어적 전략'의 다섯 가지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Faerch & Kasper(1983)는 의사소통 전략을 학습자의 의도에 따라 '축소' 전략과 '성취' 전략으로 나누고, 각 전략별 하위 전략을 설정하여 Tarone(1981)의 전략을 좀 더 상세히 분류하였다. 그리고 Bialystok(1983)는 언어 자원에 따라 '모국어, 목표어, 맥락에 근거한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모국어를 근거한 전략으로 '언어 전환, 외국어화, 직역'이 있고, 목표어에 근거한 전략으로는 '유사어, 묘사, 신조어' 사용 전략이 있다. 그밖에 비언어/맥락적 전략이 있다고 하였다. Dörnyei & Scott(1997)는 언어적 자원의 부족 외에도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심을 가져, 상호적 전략과 비상호적 전략으로 나누어 의사소통 전략을 유형화하였다.

한국어교육학에서도 앞서 언급된 영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을 유형화하는 연구들(진제희, 2000; 안주호, 2012; 강현주, 2013)이 이루어졌다. 진제희(2000)에서는 '회피, 모국어 근거, 제2언어 근거, 비언어적, 도움 요청' 전략을 선정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안주호(2012)에서는 Dörnyei & Scott(1997)의 전략을 부분 수정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말뭉치와 수집한 구어 자료를 전략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고, 강현주(2013)에서는 언어적 자원에 정체성 자원, 상호작용 자원의 부족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각각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제2언어 습득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하는지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자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 논의들은 제2언어 학습자가 불완전한 발화를 한다는 전제에서 비모어 화자의 의사소통 전략만을 보고 있다. 즉, 다중언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 기회, 권리의 관점에서 전략을 살펴기보다 비모어 화자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이에 Canagarajah(2013:79)에서는 횡단언어(translingualism)의 관점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자들이 사용하는 협상 전략으로 ‘목소리내기, 재맥락화, 상호작용, 텍스트화’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네 가지 협상 전략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상호작용’ 전략에는 ‘넘어가기’, ‘의미 정상화’ 전략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넘어가기’ 전략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불분명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나 대화를 진행하면서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굳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전략이다. 그리고 ‘의미 정상화’는 상대방의 비문법적이거나 유표적인 어휘 선택을 지적하지 않고, 언어의 형태보다는 전달 내용에 초점을 돌리는 화용 전략이다.⁴ 지현숙·황설운(2018)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언어의 상호작용 전략을 ‘넘어가기, 텍스트화, 재맥

4 신동일 외(2017), 앞의 책, 4쪽.

략화, 언어 이동, 언어 변환'으로 수정하여 재분류하였다. 즉, Canagarajah (2013)의 '넘어가기'와 '의미 정상화' 전략을 '넘어가기'로 통합하였고, '재맥락화'와 '텍스트화' 전략을 '상호작용' 전략에 포함시켰으며, '언어 이동'과 '언어 변환'도 상호작용 전략의 하나로 보았다.

Canagarajah(2013)나 지현숙·황설운(2018)에서와 같이 최근 다중언어 관점에서 상호작용 전략을 살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두 연구간 전략을 구분한 항목 간 층위에 차이가 있고, '언어 이동'과 '언어 변환' 전략 간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⁵, 전략 분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전략의 유형을 정리하고, 다양한 언어적 자원을 가진 화자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의 관점에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비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 대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비모어 화자가 출연하는 관찰 방송을 활용하였다.⁶ 최근 이러한 프로그램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기에는 특별한

5 전통적 관점에서는 '언어 전환'과 '언어 혼용'은 구분되어 사용되었으나(Sridhal, 1980; Bokamba, 1987), 실제 언어 사용 상황에서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난다(Gumperz, 1982; Auder, 1999).

6 자연스러운 발화를 수집하기 위해 자연 발화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으나, 자연 발화 수집을 통해서만 한정된 기간 내에 다양한 상황 속 많은 화자들의 발화를 수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대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대화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9년 기준으로 비모어 화자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찾아 목록화하였다. 그중 배경이 한국어 아닌 방송과 한국어가 주언어나 공용어가 아닌 방송은 제외하고, 스튜디오 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져 자연스러운 발화 수집이 어려운 방송도 제외하여⁷ 아래 표1과 같이 총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⁸

표1-자료 수집 대상 방송 프로그램

프로그램	편수
다문화 고부 열전(EBS)	19
이웃집 찰스(KBS1)	17
친절한 기사단(tvN)	7
유학 소녀(Mnet)	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EBS1)	4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	3
아내의 맛(TV조선)	2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시즌 2(MBC every1)	1
합	58

- 7 자료 수집 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방송에서도 내레이션이나 스튜디오 장면 등 부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은 자료 분석 시 제외하였다.
- 8 '다문화 고부 열전'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한국인 시어머니와의 발화를 수집할 수 있고, '이웃집 찰스'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직업을 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비모어 화자의 발화를 수집할 수 있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친절한 기사단, 유학소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한국을 잠시 방문한 여행자의 발화를,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아내의 맛'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의 발화를 수집할 수 있다. 기존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언어교육 기관의 학습자,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을 확대하여 간접적이지만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다각적인 모습을 관찰해 보고자 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전략’의 유형을 방송에 나타난 발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 발화를 분석함에 있어, 앞에서 설명한 Canagarajah(2013)와 지현숙·황설운(2018)의 다중언어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의 유형을 수정하여 분석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횡단언어주의적 관점에서는 화자의 다양한 언어적 자원과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을 둔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면대면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전략은 한국어 비모어 화자가 목표어인 한국어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활용되는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원이 충분한 경우, 모국어와 목표어 자원 중 상황에 따라 더 적절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원이 부족한 경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상대자 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자원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언어 변환(code switching)이나 언어 혼용(code mixing)은 화자의 언어적 자원의 풍부함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즉, 화자가 하나의 발화 내에서 영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경우는 한국어의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한 것일 수도 있고, 한국어 표현보다 영어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섞어서 사용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상호작용 전략의 유형을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언어적 자원의 풍부함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언어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의 전략은 크게 대화상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과 대화상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활용하는 전략으로 나누었다.’ 표2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상호작용 전략의 유형이다.

표2-상호작용 전략의 유형

구분		전략
언어 자원이 충분한 상황		1. 의미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2. 대화상대자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언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3. 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4. 비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5. 비언어적 자원 활용하기
	상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6. 넘어가기 7. 의미 협상하기

화자의 ‘언어 자원이 충분한 상황’은 기존의 제2언어 습득 연구가 의사소통의 문제 발생에 초점이 있었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항목이다. 그러나 횡단언어주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언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심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화자의 전략이라 할 수 있고,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청자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Canagarajah(2013)와 지현숙·황설운(2018)에서 ‘넘어가기’ 전략을 정의하는 부분을 보면, ‘대화 참여자가 규범에 맞지 않는 발화를 하였을 때’라는 상황 설명이 나온다. 즉, 청자의 입장일 때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의미 협상하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언어적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전략 사용자가 발화를 하는 상황인지, 발화를 듣는 상황인지에 따라 전략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대화에서 참여자는 화청자의 역할을 넘나들며, ‘넘어가기’와 ‘의미 협상하기’ 전략이 발현되는 부분에서는 전략 사용자가 청자에서 화자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자/청자’ 또는 ‘발신자/수신자’라는 용어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의 용어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언어적 자원이 충분한 경우는 메시지를 이해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만을 대상으로 삼아 하위 구분은 하지 않았다.

언어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 나타나는 전략으로는 '의미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와 '대화상대자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가 있다. '의미에 따라 언어 사용하기' 전략은 모국어와 목표어 자원이 충분한 경우, 상황 맥락에 더 적절한 언어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영어로 말하다가 '아파트 단지'와 같이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는 한국어 단어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화상대자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전략은 화자가 이중언어나 다중언어 구사자일 경우, 대화상대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발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은 학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으나 '언어 혼용'이나 '언어 전환'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언어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는 앞서 보았던 제2언어 습득 연구에서 논의가 집중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언어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비모어 화자의 발화만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모어 화자의 발화도 대상으로 삼는다. 모어 화자도 비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 한 명의 화자로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발화를 조정할 때는 공용어의 비모어 화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언어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중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은 화자가 활용하는 언어 자원에 따라 '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모국어 자원 활용하기, 비언어적 자원 활용하기' 전략으로 분류하였고, 상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전략은 '넘어가기'와 '의미 협상하기'로 나누었다. '공용어 자원 활용하기'는 대화상대자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언어 자원을 활용하여 대화상대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언어의 부족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비공용어 자원 활용하기'는 대화 참여자 간 공용어가 아닌 언어 자원을 통해 목표어의 부족을 메우려는 전략으로, 주로 발화자의 모국어를 사용한다. '비언어적 자원 활용하기'는 몸짓이나 표정 등으로

언어적 자원의 부족함을 메우려는 전략이다. 언어적 자원이 부족할 때 언어 외 자원을 통해 부족함을 메우려는 노력이다.¹⁰

상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넘어가기’나 의미 협상하기’의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넘어가기’ 전략은 의사소통 중에 상대방이 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굳이 정정하거나 바로 잡지 않고 묵과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의미 협상하기’ 전략은 대화상대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의미였는지 대화상대자들이 함께 찾아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접촉지대의 언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언어 자원을 교차로 활용하며 협상을 통한 상호 주관적인 규범을 형성하기 때문에 습득의 목표가 되는 특정한 언어 규범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꾸만 변해가는 의사소통 상황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언어적 수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자원 습득이 목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작용 전략의 유형도 귀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 전략을 모아 분류한 것이므로 고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전략 유형은 사례가 늘어나고 대화상대자들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때마다 개방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요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비언어적 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언어적 자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자원과 다른 전사 방법이 필요하며, 몸짓, 표정에 대한 전사 방법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언어적 요소는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자가 어떠한 언어를 모어로 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IV.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 상호작용 전략

1. 대화 참여자의 언어적 자원이 충분한 상황

1) '의미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전략 사용

한국어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의 첫 번째 전략인 '의미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은 'KBS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어 모어 화자인 '마린'이 프랑스인 친구와 서울 동대문 시장에 가는 상황에서의 발화이다.

(2) 마린: [프랑스인 친구에게 동대문 시장을 가리키며]

batiment blanc, C'est tous le **시장**

(흰색 건물, 이게 다 '시장'이야.)

〈KBS 이웃집 찰스 174회〉

프랑스어로 설명하다가 '시장'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였다. 프랑스어로 시장은 'marché'라고 한다. 위 (2)에서도 'C'est tous le marché'라고 프랑스어 사용을 유지해도 되는데, 굳이 '시장'으로 바꾸어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국의 '시장'과 프랑스의 'marché'가 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시장'과 프랑스의 'marché'는 그 모습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의 모습뿐 아니라 파는 물건에도

11 여기에서는 방송에 나타난 발화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찰자적 입장에서 발화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Myers-Scotton(1993:7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관찰자적 입장에서의 분석은 화자의 동기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화자의 동기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다만, 이노미(2019:21)에서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언어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이 전략은 이러한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마린은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표현하기에 ‘marché’보다 ‘시장’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프랑스어와 한국어 자원 중 의미를 더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한국어를 선택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마린과 같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다가 ‘시장’은 한국어로 표현하는 모습은 ‘Mnet 유학소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는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여러 국가에서 온 소녀들이 K-pop에 중사하는 멘토를 만나는 시간 중 나온 대화이다.

(3) 유재환: 너네 가봤니? 시장?

블라다: 아니요.

유재환: **Go to 시장?**

일동: 진짜요?

〈Mnet 유학소녀 3회〉

(3)에서도 유재환이 (2)의 마린과 같이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장’은 한국어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와 모국어로 ‘시장’이라는 단어를 모두 안다고 하여도 한국의 시장은 ‘시장’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화자의 동기는 시장이 각 문화마다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아래 (4), (5)는 ‘KBS 이웃집 찰스’에서 전사한 부분이다. ‘사라’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모두 가능한 사람이다.

(4) VJ: 어디 가세요?

사라: 저희 창고요. 저희 **cave**.

VJ: 까브?

사라: Cave.

(5) 사라: 복숭아 aroma가 되게 좋아요.

광명동굴 담당자: winery 앞에 갔을 때 돼지 갈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사라: 되게 많이 tasting하고 싶고.

〈KBS 이웃집 찰스 186회〉

(4)는 와인 회사가 있는 건물 지하에 내려가면서 사라와 VJ가 나눈 대화이다. '창고'라는 한국어 어휘를 알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어를 모르는 VJ에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일 뿐 두 사람이 가는 장소를 프랑스어인 'cave'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ve'는 '지하 창고'라는 뜻으로, 보통 포도주를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라는 '창고'라는 한국어와 'cave'라는 프랑스어 중에 포도주를 보관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말로 프랑스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5)에서도 포도주와 관련된 용어인 'aroma(향), tasting(시음)'을 말할 때 영어를 사용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 한국인도 'winery'만 영어로 쓰고 있다. 와인을 나타내는 표현은 한국어보다 서양 문화권의 언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모국어 중 '의미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전략은 '시장'이나 '포도주'와 같이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표현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다음은 'EBS 다문화 고부 열전' 중 일본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의 발화이다.

(6) 가. 며느리: 어머니, おかあさん(어머니)에게 전화 드릴게요.

시어머니: おかあさん(어머니)? 나 일본어 하나도 못하는데 こんにちは

(안녕하세요?, 낮 인사)'만 할게.

나. 며느리: 아 'おかあさん(어머니) 싫어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우리
'친정어머니'도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EBS 다문화고부열전 2019. 3. 14.〉

한국어 규범에 따르면 결혼 후 여자가 남편의 어머니는 '시어머니'로, 자신의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데 이 일본어 모어 화자는 한국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라고 한국어로 호칭하고, 일본인인 친정어머니는 일본어로 'おかあさん(어머니)'이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인다. (6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일본인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라는 어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엄마를 가리킬 때도 엄마를 부르는 말, 엄마와 함께 사용하는 언어로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 가정 내에서는 한국인 어머니는 '어머니', 일본인 어머니는 'おかあさん'으로 구분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시장은 한국어로 표현하고, 포도주와 관련된 용어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표현하는 모습은 화자가 문화적 요소가 들어있는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여러 개의 언어적 자원에서 더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어휘뿐 아니라 한국의 시어머니는 한국어로 표현하고 친정어머니는 모국어로 구분하여 나타내는 것도 이와 같은 동기에서 나타난 동일한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2) '대화상대자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전략 사용

'대화상대자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 전략은 대화상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화자가 언어를 선택해 발화하는 전략이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도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스위스인인 박나은이 있다. (7)은 박나은이 친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한국인 할머니와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7) # 박나은이 아빠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는데 아빠가 생크림을 쏟았다.

나은: Mama, ~~아빠~~ hat alles nass gemackt. (엄마, 아빠가 다 젖게 해서 난리 났어.)

할머니: 뭐라고 하는 거야?

나은: 티슈 하나 줘. 티슈.

할머니: 티슈? 가져가세요.

나은: Mama, Darfich das nehmen? (엄마, 이거 다 써도 돼요?)

엄마: (독일어로, 그럼 필요하면 다 써.)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253회〉

박나은이 엄마에게 독일어로 이야기하자 한국인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묻고, 박나은은 할머니에게 한국어로 말하고, 다시 엄마에게는 독일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어와 독일어를 모두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박나은은 대화상대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발화할 언어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상황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여러 나라에서 온 소녀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유학소녀'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8) 마리아: 일단, 떡볶이 2인분으로 주시고요. You want everything?

올린: Yes.

리수: [먹고 싶은 음식을 손으로 가리킴]

마리아: Ok. 일단, 떡볶이 2인분으로 주시구요.

〈Mnet 유학소녀 1회〉

각국의 소녀들은 보통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아는 한국어가 있으면 섞어서 쓰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8)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 마리아가 친구들과 떡볶이집에서 아줌마에게 한국어로 말하면서 동시에 친구들에게 영어로 말하는 모습이다. 하나의 순서(turn) 내에서도 대화상대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 대화상대자의 언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발화할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언어적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지금까지 언어적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화자들이 자신의 의도나 대화 상황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다중언어사회에서 매우 흔히 나타난다. 다양한 언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레퍼토리에서 특정 상황에 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신동일 외(2017:72)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어 간 경계를 허물고 횡단적으로 언어 자원을 교차시키는 것은 메트로링구얼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전략이며 도시 공간에 복수의 언어 자원을 이해하고 함께 사용하는 청자들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2. 대화 참여자의 언어적 자원이 불충분한 상황: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1) ‘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전략 사용

대화상대자의 언어 자원이 부족한 경우, 대화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가지

고 있는 언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를 활용하는 전략이 주로 나타난다.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 모두 영어 모어 화자가 아닌데 영어를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9)는 홍대 근처에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탈리아인 셰프, 엔리코가 요리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다.

(9) 한국인: 지금 파스타 면이 조금 틀린(다른) 거 같아요.

엔리코: 네, hand made 파스타. 이렇게 dry. 이 파스타가 natural dry해
요. 100% 이탈리아 wheat. 이거는 long long size. 우리 잘라요.
이거는 카레티에라 파스타. 시칠리아 알리올리오. 카레티에라
시칠리 전통 알리올리오요. 다른 지역 달라요. 옛날 돈 없었어
요. 그래서 치즈 out. 이거는(빵가루) in.

〈KBS 이웃집 찰스 196회〉

이탈리아인 셰프가 시칠리아 전통 음식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발화자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지만 틀리더라도 한국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공용의 언어 자원인 영어를 활용하고 있다. 위에서는 시칠리아 알리올리오를 치즈 대신 빵가루를 넣어서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대신, 넣다, 빼다’ 등의 표현을 몰라 ‘out, in’으로 설명하고, ‘빵가루’는 ‘이거’라고 나타냈다. 아래 (10)도 영어 모어 화자가 아닌데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섞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10) 아미두: [어깨 힘주고 침] No! OK?

[몸에 힘 빼고 리드미컬하게 치는 시범을 보임] Free.

(10)을 보면 화청자 모두 영어 모어 화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영어 자원을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에서 공통적으로 한국어를 모르는 경우 영어를 활용하지만 영어 역시 초급 수준의 어휘를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한국어를 사용하다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발견되었다. 아래의 예들은 한국인이 한국어 비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경우에는 영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1)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와 리수가 가지러 갔다.)

식당 직원: 뜨거워요. So hot.

리수: 감사합니다.

〈Mnet 유학소녀 3회〉

위 (11)에서는 식당에서 직원이 음식을 주면서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처음에 한국어로 '뜨거워요'라고 했다가 바로 'So hot'이라고 영어로 바꾸어 메시지를 한번 더 전달한다. 동일한 내용의 발화를 반복한 것은 '뜨겁다'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공용어인 영어를 활용하여 대화상대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나이가 많은 편인 한국인들도 비모어 화자에게 정확하지 않지만 영어를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12)에서는 한국인 사장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한국어, 영어, 손짓 등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언어적 자원과 비언어적 자원을 사용해 의사를 전달하였다.

(12) 사장: 네팔? 누구 찾아 왔어요?

아내: 케사브

사장: 케사브? Is this wife?

아내: Yes.

〈EBS 아빠 찾아 삼만리 82회〉

(13) 주세삐: 성에 있어요?

상인: 송해가 뭐지?

주세삐: 성에

상인: 아 성계? 요새는 철이 아니에요. [손으로 X자]

주세삐: 진짜로?

상인: 알이 없어요. 알이

주세삐: 아 지금

상인: 여름에 뜨거울 때. Sun. 그때 그때가 No.1 [엄지 손가락을 들며]

〈KBS 이웃집 찰스 196회〉

이와 같이 다중언어 사회에서는 모국어 화자를 완벽한 발화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모국어 화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비모어 화자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숙하지만 공용의 언어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상대자 중 한명의 모국어가 영어인 경우라면 좀더 편하게 한국어의 부족을 모국어인 영어로 메우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인 티모시의 대화 사례이다.

(14) 티모시: Hi, guys! 에어컨 없어요?

상인: 있어요.

티모시: 어~ 다행이네. I don't have.

〈KBS 이웃집 찰스 128회〉

티모시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티모시의 모국어가 영어이고, 한국인들도 다른 외국어에 비하여 영어가 좀더 친숙한 언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청자가 함께 공유하는 언어를 한국어와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시 영어 사용이 좀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예가 언어 자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나 비모어 화자가 영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면, 아래의 예들은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활용하는 모습이다. 언어 자원이 부족한 경우,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발화는 기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국어 비모어 화자뿐 아니라 한국어 모어 화자도 비모어 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를 간소화해 표현하는 상황도 동일한 전략의 사례로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공용어로 한국어를 활용하는 전략은 다시 '새로운 규칙 만들기', '간소화', '상세화' 등의 전략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다음은 한국 생활을 하는 칠레인 제르와 한국에서 젊을 때 생활해 본 경험이 있는 제르의 아버지의 인터뷰 중 일부이다.

(15) 가. 제프: 마지막동생(막넷동생)은 정리라고 합니다.

나. 아버지: 그때는 목욕치킨(삼계탕) 제일 좋아했죠.

〈MBC every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85회〉

두 사람은 정확한 한국어 단어나 표현을 몰라 새로운 표현을 만들고 있다. '막넷동생'을 '마지막동생'이라고 표현하였고, '삼계탕'을 '목욕치킨'이라는 새로운 어휘로 나타내고 있다. 아래 (16)은 새로운 문법 규칙을 만들어 발화한 예이다. 프랑스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에게 '안 일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문법 규칙을 만들어 말했는데, 아내가 옷자 잘못 말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영어로 물어본 후, 아내가 가르쳐 준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 모습을 보인다.

(16) 제프: 내일은~ 안 일하고 있어~

아내: 뭐야. [하하하하하] 안 일하고 있어 [하하하하하]

제프: How to say. I don't work tomorrow~

아내: 내일 일 안 해.

제프: 일 안 해~

〈KBS 이웃집 찰스 160회〉

한국어 비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표현을 모를 때 새로운 어휘나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유사한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17)은 '오래되었다'를 '오랜만이다'라고 표현한 사례이고, (18)은 '나중에'를 '이따가'로 대체하여 표현한 경우이다.

(17) 리비아: 제가 되게 오랫동안 케이팝 좋아했잖아요. 2010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랜만이에요(*오래됐어요). 소녀시대

‘OH’ 뮤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한국어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Mnet 유학소녀 1회〉

(18) 아빠: 아기 언제?

남편: 여보. Answer to your father.

이따가.

〈KBS 이웃집 찰스 160회〉

언어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조사나 어미를 생략하고 간단한 어휘를
나열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아래 (19)는 마트에서
한국인 상인과 중국인 고객의 대화이다.

(19) 진화: 하나 사요. 그리고 하나? (얻는다는 표시?)

상인: 하나 공짜.

진화: 오~ 두 개 두 개 [샴푸 두 개 집는다] 감사합니다.

〈TV조선 아내의 맛 53회〉

중국인 고객이 ‘1+1’이라고 쓰인 광고를 보고 ‘하나 사요 그리고 하나?’라
고 문법적 요소는 모두 생략하고 어휘만 나열하여 발화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인 상인이 이를 이해하고 ‘하나 공짜’라고 하면서 발화를 완성해 주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한국인 상인의 발화도 비모어
화자의 발화와 같이 매우 간소화해 표현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위 (18)의 아빠의 발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언어적 자원이 부족한 한국어 비모어 화자가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을
때 한국어 모어 화자도 그 규범을 수용하여 새로운 규범에 따라 발화하기도

한다. 다음은 앞 1.1절의 예문 (6)에서 본 것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가져온 사례이다.

(20) 한국인 시어머니: [카펫 보면서] 이거 'おかあさん(어머니)' 숨씨인 것 같은데?

혼다 에미코: [끄덕끄덕]

〈EBS 다문화 고부열전, 2019. 3. 14.〉

(21) 한국인 처남: 죽을 거 같애.

티모시: [잠시 걸음을 멈추며] Wait!

한국인 처남: [소파를 돌리며] Turn in!

티모시: [소파를 세우며] Stand!

한국인 처남: Stand! 안 돼?

〈KBS 이웃집 찰스 128회〉

앞서 (6)에서 일본인 며느리가 한국인 시어머니는 '어머니'로, 일본인 친정어머니는 'おかあさん(어머니)'으로 구분지어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20)을 보면 한국인 시어머니도 이러한 일본인 며느리의 규범을 수용하여 사돈을 'おかあさん(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1)은 미국인 티모시와 한국인 처남이 중고소파를 사서 집에 가지고 와 소파의 각 맞은편을 들고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티모시가 'Wait!'이라고 영어로 코드를 변환하자 처남도 티모시의 코드 변환을 받아들여 'Turn in!'이라고 하며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티모시가 세우라는 말을 'Stand'라고 하자 처남도 'Stand 안 돼?'라고 하며 티모시의 발화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다.

또한 한국인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대화상대자의 모국어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다. 아래 (22)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나조카혼이 일을 하다 자주 실수를 하자 사장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고, (23)은 이사벨이 멕시코 사람이라고 하자 이사벨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인사를 하는 모습이다.

(22) 나조카혼: 제가 항상 헛갈리는 게 4하고 3.

한국인 사장: 그러니까 четыре(4)

〈KBS 이웃집 찰스 162회〉

(23) 이사벨: [이웃 상인들에게 떡을 돌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사람 이사벨입니다.

이웃 상인: Hola~(안녕하세요)

〈KBS 이웃집 찰스 177회〉

나조카혼이 ‘삼’과 ‘사’를 헛갈려 실수가 잦자 사장이 이를 한국어 대신 러시아어로 얘기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 한국인들은 (23)에서와 같이 특히 인사 상황에서 공용어를 활용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대화상 대자의 모국어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래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며느리: 어머니, 이따 저기 아빠 만나면 뭐 얘기할 거예요?

시어머니: (내가 베트남어로) 얘기 할 줄 알어? 뭘 허나. 아, 인사 한마디 라도 배워야디야. 인사할라고. ‘안녕하세요.’ 한마디하고 또 ‘건강하세요.’ 두 마디 배워야디야.

며느리: Xin chào.(안녕하세요) thông gia, khỏe không?(사돈, 건강하셨어요?)

시어머니: 신짜오통라코켄? [웃음] 썸 짜오! 통라코켄!

〈EBS 다문화 고부 열전, 2015. 4. 9.〉

한국인 시어머니는 베트남인 사돈을 만나서 베트남어로 인사하기 위해 만나기 전에 며느리에게 인사말을 배우고 있다. '인사 한 마디라도 배워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발화를 통해 인사는 청자의 모국어로 말하고 싶은 마음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한국어 비모어 화자가 새로 만든 규범에 따라 발화하는 것은 비모어 화자의 새 규범을 수용하면서 대화를 더욱 적극적이고 협력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비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전략 사용

앞서 언어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대화자들이 한국어나 영어와 같은 공용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여기에서는 유사한 상황에서 공용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대화 참여자 간 공용어가 아닌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여자 댄서: 자꾸 이렇게 빨라져.

남자 연주가: 시그널 주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뭔가 계속 안 맞는 거 같아.

아미두: Because 너무너무 lentement(천천히)하면 재미없어요.

여자 댄서: 근데 너무 빨라져 가지구.

〈KBS 이웃집 찰스 146회〉

(26) 정형돈: 형수님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야노시호: せんまん(천만)! 부족하면 자기가 더 내요.

〈MBC 마이리틀텔레비전 시즌 2 3회〉

(25)에서 한국인들이 아마두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 해당 어휘가 '천천히'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국어를 사용해 한국어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26)에서도 일본인 야노시호는 '천만'을 일본어로 발화하였다.

이 전략은 화자가 대화 상대자가 모르는 자신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앞의 공용어 자원 활용하기와는 차이가 있다. 즉, (25)에서 아마두가 'because'를 사용한 것은 대화 참여자가 모두 아는 영어를 사용해, 공용어 자원을 활용했다면, '천천히'는 남자 연주가나 여자 댄서가 모르는 모국어인 프랑스어 'lentement'을 사용해서 자신의 발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참여자 중 한 명만 아는 언어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전략과 달리 언어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공용어를 활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지 않았다.

3. 대화 참여자의 언어적 자원이 불충분한 상황:

상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1) '넘어가기' 전략 사용

상대의 메시지를 이해 못 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상호작용 전략 중 '넘어가기' 전략을 먼저 보려고 한다. '넘어가기'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표어의 규범을 어기는 언어 사용자의 발화를 굳이 정정하거나 바로 잡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아듣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27) 티모시: [입에서 산낙지가 꿈틀거리는 모양을 몸으로 표현함] 입에
짜워요. 싸우다.

장모: [낙지를 다 먹기 전에 닭다리를 집어 먹여 주며] 맛있어?

〈KBS 이웃집 찰스 128회〉

미국인 티모시가 산낙지가 입 안에서 꿈틀대는 모습을 ‘입에 싸워요. 싸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휘, 문법 모두 맞지 않는 말이지만 장모는 이를 신경쓰지 않고 맛있냐고 물으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와 같이 한국어 자원이 불충분한 화자가 발음이나 문법, 어휘를 잘못 말해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한국어 모어 화자인 메시지 수신자가 상황 맥락을 활용하여 화자의 발화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상황은 꽤 자주 나타난다.

(28) 사위: 이거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장모: 아~ 이름? 어묵 어묵

〈KBS 이웃집 찰스 183회〉

(29) 이사벨: Our salad is finished. All finish. 미안해요~

손님1: 뭐 하나가 안 된대?

손님2: 살라(salad)가 안 돼서 다른 거로 바꾸래.

손님3: 살라가 뭔데?

손님2: 그건 나도 몰라.

〈KBS 이웃집 찰스 177회〉

(28)에서는 이탈리아인 사위가 장모가 하는 떡볶이 가게에서 어묵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상황이다. ‘이거는 이름이 뭐예요?’라고 해야 하지만 ‘이거는 이름이에요?’라고 묻고 있다. 장모는 어묵의 이름을 묻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어묵’이라고 알려주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29)는 이사벨의 멕시코 식당 장면이다. 샐러드 재료가 다 떨어져서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샐러드를 ‘살라’라고 발음하여 한국인들이 뭐가 다 떨어진 것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나 메시지 수신자인 한국어 모어 화자는 ‘살라’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음식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고 메뉴를 바꿔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있다. ‘넘어가기’ 전략은 수신자들이 발신자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를 굳이 문제 삼지 않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의미 협상하기’ 전략 사용

‘의미 협상하기’ 전략은 대화상대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의미였는지 대화상대자들이 함께 찾아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아래 (30), (31)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남성 진화가 한국 마트에서 장을 보는 장면에서 나온 대화이다.

(30) 진화: 안녕하세요. [신발을 만지며] 신발 귀여워. 이거 애기 사이즈도
있어요? 애기? 조금조금 사이즈도 있어? 이거 애기 똑같은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애기. 3개. [손가락 3개를 펴며] 똑같은 있어요?

상인: 없어요.

진화: 없어요?

상인: 애기 건 없어요.

〈TV조선 아내의 맛 55회〉

(31) 진화: 안녕하세요? 혹시 돼기(돼지)발 있어요?

상인1: 네?

진화: 돼기발

상인1: 네?

진화: 돼기

상인1: 돼지?

진화: 돼지. 돼지발

상인1: 돼지발이요?

진화: [자기 발을 가리키며] 발.

상인1: 족발 말씀하시는 거죠? 족발 이쪽으로. 이거예요. 족발.

〈TV조선 아내의 맛 53회〉

중국인 고객(진화)이 아기 사이즈 운동화도 있는지 묻고자 ‘조금조금 사이즈’, ‘[손가락 3개를 펴며] 똑같애 있어요?’라고 새로운 어휘와 표현을 만들어 말하자 한국인 상인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일종의 ‘넘어가기’ 전략을 사용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진화가 실망하며 없냐고 되물자 ‘애기 낀 없어요’라고 하면서 진화가 표현하지 못했던 표현을 말하면서 ‘아기 운동화는 없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31)에서는 진화가 ‘족발’이라는 단어를 몰라 ‘돼지발’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마저도 발음이 부정확하여 상인이 ‘네?’라고 하며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진화는 ‘돼지’와 ‘발’ 단어를 하나씩 말하고, 몸짓을 더해가며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청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진화의 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협력을 통해 결국 진화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족발’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대화는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력하며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두 화자 간 언어적 자원이 다를 때에도 화자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자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하나의 대화 내에서 다양한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대화상대자의 발화를 잘 이해하지 못 했을 때 활용하는 전략을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상호작용 전략 연구가 언어적 자원이 부족하

여 의사소통 문제를 발생시키는 참여자의 전략에 집중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려는 대화 참여자들의 전략도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고자 하였다. 언어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는 화자에게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청자에게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청자와 화자 사이의 합의,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는 것이다.¹²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다중언어주의의 관점에서 각기 다른 언어적 자원을 가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가 면대면으로 만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는지 살펴보았다. 그간 한국어 교육에서는 비모어 화자의 발화를 교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결핍이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한국어의 정확한 사용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발화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모습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도 언어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모어 화자와 동등한 관계로 두고 이들이 활용하는 상호작용 전략을 같은 유형 안에서 살펴보았으며, 다중언어적 관점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언어적 자원에 따라 전략을 분류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12 김남욱 역, 『언어접촉과 2개 언어 상용』(동인, 2009), 60쪽.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방송을 통해 간접적이고 한정적인 대화 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비모어 화자 간의 대화를 보지 못했으며, 대규모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각 전략 사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언어적 자원 활용에 초점을 두다 보니 비언어적 자원의 활용 전략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이루어질 다양한 관점의 연구에서 보완되고 수정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례들은 '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해야만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가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변화시킨다. 한국어 사용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 사회에서 다양한 언어권의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언어주의적 관점에서 다중언어주의로의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고, 다중언어사회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남옥 역, 『언어접촉과 2개 언어 상용』, 동인, 2009(René Appel & Pieter Muysken., *Language Contact and Bilingualism*.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5).
- 신동일·박수현·김가현·조은혜·심우진, 『접촉의 언어학: 다중언어사회의 교육과 정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Bialystok, E., *Communication strategies. A Psychological Analysis of Second Language Use*. Oxford: Brasil Blackwell, Inc, 1983.

Canagarajah, A. S., *Translingual Practice: Global englishes and cosmopolitan relations*. New York, NY: Routledge, 2013.

Faerch, C., & Kasper, G., *Strategies in Interlanguage Communication*. Longman, 1983.

Gumperz, J. J.,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Kirkpatrick, A.,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ASEA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0.

Myers-Scotton, C., *Sociolinguistic Motivations for Codeswitching: Evidence from Af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 논문

강현주,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 연구: 구어 발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9, 2013, 355-382쪽.

김은혜, 「말하기 평가에 구현된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40, 2011, 359-396쪽.

심상민·조형일, 「다중언어 사회에서 읽기 교육의 방향」. 『새국어교육』 120, 2019, 185-214쪽.

안주호, 「한국어 학습자 간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63, 2012, 171-190쪽.

이노미, 「의사소통전략에 따른 Code Switching 사용 동기 연구: 표준어와 삼척지역

어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7(3), 2019, 5-39쪽.
지현숙·황설운, 「도시언어 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일고찰: 대학 공간 내 대화참여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6(4), 2018, 375-398쪽.
진제희,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분류 및 분석: 비상호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1(1), 2000, 175-199쪽.

Auer, P., "From codeswitching via language mixing to fused lects: Toward a dynamic typology of bilingual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3(4), 1999, pp. 309-332.

Bokamba, E. G., "Are three syntactic constraints on code-mixing?" *A revised version of the paper presented at the 15th NWAV*,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1987.

Dörnyei, Z., & Scott, M. L., "Communication strategies in a SecondLanguage: Definitions and Taxonomies", *Language Learning* 47(1), 1997, 173-210.

Tarone, E., "Some Thoughts on the Notion of Communication Strategy", *Tesol Quarterly* 15(3). 1981, pp. 285-295.

국문초록

한국이라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한국어 비모어 화자들은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접촉 언어인 한국어와 영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 나간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비모어 화자의 발화와 대화할 때 그들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언어적 자원을 활용해 추론하거나 자신이 가진 자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하면서 의사소통을 이어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가 상호작용을 하는 접촉의 상황에서 어떠한 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대화를 이어가는지, 여덟 종류의 TV 방송 프로그램(총 58편)을 통해 살펴보았다.

상호작용 전략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을 수정하고, 방송 프로그램 전사 자료를 통해 귀납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의 기준을 ‘언어적 자원의 풍부함’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언어 자원이 충분한 상황에 나타나는 전략으로는 ‘의미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와 ‘대화상대자에 따라 언어 선택하기’로 세분하였다. 언어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의 전략은 크게 언어적 자원의 부족함이 있지만 대화상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과 대화상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활용하는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은 화자가 활용하는 언어 자원에 따라 ‘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비공용어 자원 활용하기, 비언어적 자원 활용하기’ 전략으로 분류하였고, 상대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전략은 ‘넘어가기’와 ‘의미 협상하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에 해당하는 대화 상황을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해야만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는 언어 사용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해 가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변화시킨다. 한국어 사용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만 국한되지 않는 현 사회에서 다양한 언어권의

한국어 사용자들은 한국어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일언어주의적 관점에서 다중언어주의로의 관점의 전환을 제안하고, 다중언어사회로서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어 비모어 화자의 발화를 교정의 대상이나 결핍이 있는 것으로 보던 시선을 각각의 다양한 화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자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모습으로 보고자 하는 데 돌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투고일 2020. 3. 23.

심사일 2020. 4. 20.

게재 확정일 2020. 7. 29.

주제어(keyword) 상호작용 전략(interaction strategy), 다중언어주의(multilingualism), 언어적 자원(language resource), 한국어 모어 화자(KNS), 한국어 비모어 화자(KNNS)

Abstracts

Patterns of Interaction Strategy between Korean Native Speaker and Korean Non-native Speaker in Korean TV Shows

Hwang, Sunyoung

Korean non-native speakers(KNNS) will find their way through communication in a multilingual society like Korea using Korean or English as a contact language. Korean native speakers(KNS) will also try to understand KNNS utterance by employing their language resources to infer or other available methods to continue the communica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types of interaction strategies between KNS and KNNS to continue conversations in contacts by analyzing eight different Korean TV shows(58 episodes).

The types of interaction strategies were inductively collected from transcription data of TV shows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n re-categorized depending on "the abundancy of language resources." Under abundant language resources, common strategies include "Relying on the meaning" and "Relying on the conversation participant." Under insufficient language resources, the strategies can be re-divid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when the speaker needs to deliver a message, or when the speaker did not understand the message from conversation participant. The strategies in trying to deliver a message are categorized as "utilizing common language resource," "utilizing non-common language resource," and "utilizing nonverbal resource." The strategies in trying to understand the participant's message are categorized into "let-it-pass" and "negotiating the meanings."

Studying the conversation cases of each interaction strategies, the question "Should speaking accurate Korean be essential to a successful interaction?" answers itself "No." Language is constantly changing by those who use it, and Korean speakers constantly change Korean. So far as Korean speakers are not limited to its natives, the KNNS within the community will contribute to the dynamics and diversity of the Korean language. This study tries to propose a paradigm-shift from the former perspective of monolingualism to multilingualism, and suggest Korea's facets as a multilingual society. The core of this study lies in trying to understand the utterance of KNNS as an effort

towards a successful interaction using each speaker's available language resource, rather than an object of correction or deficiency.